

♣ 지구온난화 유발 이산화탄소 급증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지난 20년 동안 인간에 의한 지구의 탄소 사이클의 변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투저스 해양과학대학의 폴 팔콕스키 교수 연구팀은 현재와 산업혁명이 있기 42년만의 비교를 통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지구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현재는 산업화 이전의 지구 시스템을 특징지우는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구 시스템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만약 각국의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갖추지 않는다면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 기준초과 공해업소 퇴출 방침 밝힌

중국 정부는 연말로 정한 기준초과 공해업소 퇴출 시한을 다시 하달하는 등 공해업소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환경총국 오염통제사(汚染控制司)의 린신위엔 사장(司長)은 정부 허용치 이상의 공해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을 연내에 폐쇄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한달여 동안 정화시설 설치나 확충 등 공해 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은 모두 퇴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이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차이퉁이 지난 11월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정치적 분야에만 국한해 개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최근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단이 북한의 환경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은 지난 9월말 현재 공해 업소로 적발된 23만8천여개사 중 93%만이 기준치 이하의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7%는 여전히 시설 정비 지시를 거부하거나 뒤늦게 정비에 나섰다. 또 산업 폐기물의 65%를 차지하는 대규모 업소 1만8천개 중에는 1만5천 300개만이 허용치 범위내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환경분야 국제협력 모색

북한이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차이퉁이 지난 11월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정치적 분야에만 국한해 개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최근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단이 북한의 환경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국장(전 독일 건설교통장관)은 북한에서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이로 인한 토양 침식으로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전하고 지난 수년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식량난은 이 같은 환경파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퍼 사무국장은 단기간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토양침식 정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조림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퇴퍼 사무국장은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의 환경훼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향후 북한 당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북한측이 그동안 불참해왔던 국제환경기구와 환경관련 협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퇴퍼 사무국장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환경 보호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